

상상과 그것의 공유는 인간을 발전시킨다

김지원

1. 무엇을 느꼈는가.

첫째,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이 인간에게 왜 필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꾸준히 흔히들 말하는 '인터넷 중독 검사'를 실시해 왔고, 특히 게임 중독은 학업 부진아,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혀 왔다. 나 또한 게임은 무의미한 시간 낭비이며 일시적인 욕구 충족에 불과하다고 생각 해왔다. 하지만 가상 공간에서 벌어진 '바츠 해방 전쟁'은 내게 가상 공간, 특히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다. 게임 속 '나'는 내 육체로 살아가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도피이고, 큰 노력 없이 가시적으로 이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허구적 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평소 꿈꿔왔던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현실 속 '개인'의 자격으로는 당연히 되었던 제약들이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에서는 주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이 되고, 또 그 인식을 현실에 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상, 즉 게임 속 세상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렇지 않다고 인식 하게 해 줌으로써 현실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 가치 판단, 즉 자의식을 가진 알고리즘 혹은 인공지능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느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나는 기계와 인간을 구별 짓는 큰 요인에 시간과 감독자의 존재 여부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의 경우 인간이 유의미하게 오랜 시간 축적해 왔으며, 시간에 따른 인간의 존재는 환경에 맞춰 인간을 제어해 왔다. 그리고 그 기간은 (인간의 수명에 비해) 꽤 길었다. 또한 감독자가 없으므로, 특정한 방향성 없이 흘러왔다. 하지만 기계는 다르다. 인간이라는 감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방향성이 존재하며, '시간'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다 무색할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계가 오히려 제어하기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이루어질 기계의 무분별한 개발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디스토피아로 만들 수도 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야 하지, 도구에게 정복되어서는 안된다.

2. 무엇을 상상하는가.

먼저, 바보 같은 생각도 서로 검열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한다. 수업을 듣고 칼럼을 읽으면서, 큰 뜻이 있는 것보다 작은 생각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의 조그마한 자극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 생각들을 서로 교류하는 것에 많이 인식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묻는 것은 정해진 답을 얻고자 하는게 아니다. 그것은 단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관점을 공유하는 것일 뿐이다. 다른 사람이 바라 볼, 그들이 평가 할 자신의 모습을 개개인이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이 오늘 아침에 했던 바보 같은 생각을 지나가는 길에 만난 친구와, 선생님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상상한다.

둘째, 컴퓨터를 통해 하루 빨리 언어 장벽이 무너지는 사회를 상상한다. 현재 SLP는 꽤 개발이 많이 진행되었고, NLP 또한 활발히 연구 중이지만 언어 처리는 아직 NP 분야로,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 물론 언어 자체가 정형화 될 수 없고, 수치화 하는 과정에서의 비용과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나는 그 만큼 이 도구가 갖는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언어의 개방은 그 범위만큼의 소통 개방을 의미하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는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인간 지능과 본능, 그리고 현실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상과 현실의 괴리가 좁아지는 사회를 상상한다. 우리가 상상하는 사회는 항상 유토피아다. 즉, 지금 이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상상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에서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므로 그 욕망과 현실이 완전히 합치 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눈 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꿈꾼다.